

Vol. 6

수영, 오늘을 달리다

도시수영 1

도시수영

도시 거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도시 수영



여는 글

수영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위원장 전미경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도 수영구도시재생뉴딜 사업은 올 한해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 선진지 답사를 서울 성수동으로 다녀오고, 다양하게 풀어낸 마을 축제와 도시재생 공모사업도 잘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도시재생산업박람회>와 <부산 도시재생박람회>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상을 받는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 힘을 모은 결과입니다. 2022년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마무리하는 해로 지역주민 여러분의 참여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내년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도도수영

CONTENTS

VOL. 6

수영, 오늘을 달리다



01 선진지 답사_서울 성수동 | 04

- 성수동에 가면
- 성수지영, 초콜릿

02 시 지정 무형문화재 : 농청놀이 | 08

- 수영농청놀이(부산광역시 무형 문화재 제 2호)
- 수영농청놀이 전수교육 현장을 다녀오다

03 도시재생 박람회 | 12

- 2021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 산업박람회를 다녀와서
- 부산도시재생박람회

04 주민 축제 | 16

- 대구(區)민 힐링콘서트
- 효시(소리화살) 만들기 체험

05 도도수영 NEWS | 18

- 2021년 2기 수영구 도시재생 주민대학, 도도수영 도시재생 해설사 2기 심화과정,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06 주민공모사업 | 20

- 결과 및 성과 취재

07 수영 달리다 | 22

- 상생협력센터 공사 전·후

08 Quiz 및 이벤트 | 23

- 오타 찾기 or 문제 맞추기

성수동에 가면

주민협의체 문성애

우선 그동안 다양한 교육과 체험 및 워크숍 등으로 수영구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음을 무한한 영광으로 여기며

지난 11월 15일 월요일 이른 아침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일원으로서 수영구 도도사업과 유사사례인 성수동을 견학하기 위해 KTX에 몸을 실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미 지쳐있던 건조된 일상에서 단계적 일상회복(With Corona)의 첫행보로 선택한 성수동.

서울역에서 지하철로 한시간 남짓 거리의 성수동엔 현장지원센터 관련자분들이 맞아주시며 우리 일정을 안내해 주셨다.

조선시대 이후 전국에서 가장 큰 목축장과 염색 공장터였다던 이곳 성수동은 어느덧 산업혁신공간으로 변모하였다 하니 상전벽해라!

이미 과천으로 이전한 경마장의 위상은 서울숲 공원 안에 있는 *달타는기수*의 조각상으로 대변되고 있었고, 곳곳의 공장터는 삶터로, 일터로, 그리고 쉼터로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져 있었는데 주민들에 의해 탄생된 *성수지애 협동조합카페*도 이미 명소화된 붉은벽돌 건축물들 사이로 퍽하니 자리잡고 있었다.



청년들의 스마트업 공간인 성수동. 독점 골목길엔 오래된 공장과 새로 생긴 카페와 젊은 작가들의 공방이 혼재되어 있었다. 또한 붉은벽돌 마을지역으로, 고유의 특성과 매력을 살려 지역건축자산으로 보전하고 마을을 명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한창 진행 중 이었는데, 이를 위해 나눔공유센터 내에 붉은벽돌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마을건축가와 코디네이터를 운영한다고 한다. 이 프로젝트는 이미 (17.7.3) 성동구 조례로 제정하여 붉은벽돌로 건축할 경우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배워야 할 점인 것 같다.

마을을 끼고 있는 잘 꾸며진 *서울 숲* 주변으로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비싼 아파트들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젊은이들이 몰리는 화제의 골목길이 있는 동네. 학교도 지하철도 지나는 길이라 부동산 투자의 요지로 들쭉이는 성수동은 이미 대표적인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인데, 과연 원주민에게 그 삶은 좋은 삶이라 할 수 있을까?

생존을 위해 달리던 성수동은 이제 젊은이들이 유행을 누리며 유랑하고 있었다.

성수지앵, 초콜릿

주민협의체 김영희

지난 11월 15일 수영구 주민협의체는 역량강화 사업 유사사례 견학을 위해 서울시 성북구 성수동 일대 도시재생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처음 방문한 성수동 현장지원센터에서 성수지앵 협동조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성수지앵은 수제화 거리로 유명한 성수동의 역사를 담아 수제화 모양의 초콜릿을 만들어 판매 해온 기업(성수지앵협동조합)으로, 성수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마을카페, 어린이블록방, 공유주방, 노인정 등 모든 세대가 소통하는 커뮤니티 공간을 운영 중이라고 했습니다.

설명을 듣고 난 후, 가로수와 나무들이 많아서 서울이란 느낌이 들지 않고 운치 있었던 '할머니의 레시피' 식당에서 맛있는 불고기 정식 식사 후, 본격적으로 성수지앵 현장을 투어했습니다. 성수지앵의 나눔공유센터는 층별로 공간을 구성했는데, 1~2층은 카페, 3층은 어린이 블록방, 4층은 파티룸/공유주방, 5~6층은 할머니/할아버지방(서울숲 경로당)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나눔공유센터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선불카드 결제 시 10% 할인받을 수 있으며 조합원으로 가입 시 20% 할인된 요금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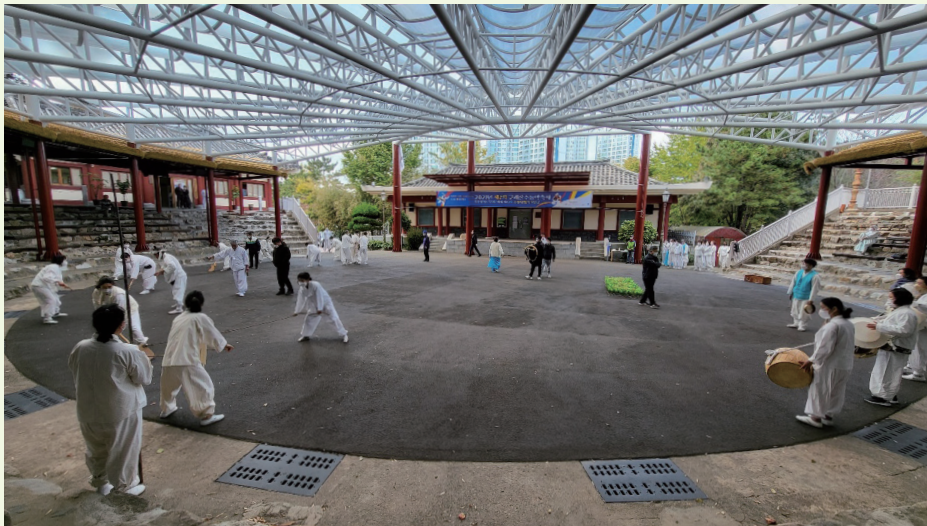
다음으로 인근에 있는 서울숲公園으로 이동하는 동안 적벽돌의 건물들이 눈에 띄었는데, 이 건물들은 노후 주택을 적벽돌마을 대상지 건물로 선정하여 적벽돌 건축 및 수선비를 지원받아 다양한 구조와 디자인으로 특색있게 리모델링 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색있는 카페와 식당, 가로수길, 서울숲公園이 어우러져 젊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활기찬 거리로 탈바꿈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제정 이후 임대인과 임차인 상생협약을 체결을 위해 건물주에게 증·개축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해당 지역 건물주의 70%가 동참하게 된 '상생임대' 마크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 활성화에 따라 임대료인상으로 상인들이 타지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영구도 관련 사례를 적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민협의체 12명으로 시작된 성수지앵협동조합이 현재는 100명 이상의 조합원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도시재생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은 주민의 주도하에 열정적으로 함께 노력하여 이루어낸 결과로 보입니다. 성수지앵을 거울삼아 도도수영 도시재생도 역사가 숨 쉬는 마을로서 차별화된 볼거리와 고객 중심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성장할 거라 믿으며 글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영농청놀이

(부산광역시 무형 문화재 제 2호)

마을발굴단 최광훈



수영농청놀이는 우리 고장에 오래 전부터 전래되어 왔던 농청의 구성원들이 농사짓는 과정을 민요 중심으로 재현한 놀이이다. 수영은 임진왜란 직전부터 300년 가까이 경상 좌도 수군절도사영이 있었던 곳으로 반농반어(半農半漁)에종사하는 마을로서 생업형태에 따라 ‘농청놀이’와 ‘좌수영어방놀이’를 하면서 고된 노동의 피곤함을 달랬다고 한다. 농청(農廳)은 예로부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서로 돕고, 일손이 필요할 때는 함께 일하며, 마을의 질서를 깨트리거나 어지럽히는 일을 막고 농사를 효율적으로 짓기 위해 농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단체로 두레라고도 한다.

벼농사에는 파종, 이앙, 제초 등에 있어서 제한된 시간 내에 대량의 노동력이 필요했으므로 농청과 같은 공동 노동은 필수적인 농경방법이었다. 수영 지역은 동부와 서부로 농청이 나누어지며, 농청은 노동력이 있는 성인 남녀로 구성되었다. 또 작업의 효율을 위해 집강(執綱: 대표), 행수(行首: 농사의 총감독), 문서잡이(서무와 회계 및 기록), 집강(集講: 계획 수립과 지도), 야장(野長: 솟총각, 들일의 책임자), 영각수(令角手: 땡갈이, 영각을 불어 집합하거나 작업을 지시) 등의 직책을 두었다. 수영농청놀이는 농요를 중심으로 벼농사의 전 과정을 재현한다.

연희의 구성은 풀노래, 가래 소리, 모찌기 소리, 모심기 소리, 도리깨타작 소리, 논매기 소리, 소싸움 및 칭칭 소리(꽤지나‘칭칭’나네) 등으로 짜여 있다. 풍물 악기는 사물(四物: 쟁과리, 징, 장고, 북)이 1개씩만 동원되는 형태이다. 풍물은 일을 시작하고 끝낼 때, 휴식, 간단한 고사, 유희적인 오락 등을 할 때 농청원들이 연주를 한다. 또 나팔의 일종인 1미터가 넘는 영각(令角: 입으로 불어서 신호를 보내는 큰 호각)을 불어 집합, 일의 시작과 마침, 휴식, 비상을 알려 준다. 소싸움과정에서는 이기는 농청은 논농사가 잘되고 지는 쪽은 밭농사가 잘 된다고 한다. 동부농청은 황소를 서부농청은 흑소를 내세워 싸우고 열렬한 응원을 하지만 항상 동부농청의 황소가 이긴다.

동부농청지역은 평지가 많아 논농사 위주였고, 서부농청지역은 산지가 많아 밭농사 위주였던 것을 감안한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양보의 미덕을 엿볼 수 있다. 1945년 해방 당시만 해도 수영은 약 350호 1,700여 명의 주민 대부분이 농민이었고, 농청 조직도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1966년부터 도시화에 따라 농가 호수가 격감하면서 농청도 해체되기에 이르렀다. 소중한 전통 문화가 사라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지역민들이 사단법인 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를 중심으로 이를 보존하고 전승하려는 목적으로 연희화하여 ‘수영농청놀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1972년 부산광역시 무형 문화재 제2호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다.

수영농청놀이 전수교육 현장을 다녀오다

마을발굴단 장은서



찬바람이 부는 가을 날씨에 “조금 두꺼운 옷을 입고 갈까?” 걱정을 하며 잠바를 걸치고 수영사적공원으로 향한다. 마을소식지에 수영농청놀이 공연을 보고 글을 싣기로 하였으나 아쉽게도 아직 공연을 하지 못해 전수교육 현장을 가기로 했다.

교육이 시작되었는지 흥겨운 소리가 들려 발걸음을 재촉한다. 수영민속예술관 놀이마당에 도착하였을 때는 다행히 어방놀이 연습이 막 끝나고 정리를 하고 있었다. 자리를 잡고 교육이 시작될 때까지 책자를 보며 기다린다.

수영농청놀이는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되어 농청농요를 전승하고 있는 수영의 자랑이다.

코로나19로 공연은 하고 있지 않지만 꾸준히 교육을 하며 전승하고 있다고 한다. 곧 공연을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농청놀이는 긴담뱃대처럼 생긴 영각을 동서남북으로 ‘부웅~부웅’소리를 내며 교육이 시작되었다.

사물놀이의 팽과리 소리가 흥겹게 울리면 『풍물-농요-풀베기소리-가래소리-모찌기소리-모심기소리-도리깨타작소리-논매기소리-소싸움과 칭칭소리』순으로 공연과 똑같이 교육을 하고 있었다.

농청놀이를 보는 내내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신 우리의 부모님이 생각났다. 때 되면 모내기하고 풀 뽑고 밭두렁에 깨 심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농사철이 되면 시골에서 고스란히 주말을 보내고 오면 온몸이 쭈시고 빠근하여 며칠은 고생을 했다. 그리고 보면 종일 농사일을 하며 허리 펴 시간도 아끼며 열심히 손을 놀리신 부모님은 허리가 성할 일이 없다.

농요로 고단함을 달래며 농사를 지으셨지만 얼마나 힘드셨을까! 다시금 존경심이 우러난다.

인상이 좋으신 김채우 선생님은 무형문화재가 되기 위해 1992년 입회하여 조교-전수생-전수장학생-이수자-보유자후보 과정을 거쳐 2016년에 보유자가 되셨다고 한다. 농사지으며 살아온 우리 모습을 도시에서는 보기 힘들지만 이렇게 공연으로 보여 줄 수

있어 다행이라고 하셨다. 마지막으로 조용한 도심 속에서 연습하는게 쉽지 않으신지 주민들의 관심과 우리 문화를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분들을 응원해 주길 바란다고 하셨다.

그리고 보면 공원에는 천연기념물이, 이웃의 아재는 무형문화재. 귀한 것을 쉽게 만나고 볼 수 있어 귀하다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소중히 여기고 아껴야 할 것이다.

농청놀이 전수교육 현장을 다녀오면서 가까이 있는 소중한 것에 대하여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다.



2021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도시재생 청년인턴십 박선영



지난 10월 27일(수)부터 10월 30일(토)까지 4일간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일대에서 '2021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수영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단독부스로 주민과 함께 박람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올해 3회차로 도시재생 참여 주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도시재생 산업의 발굴·육성 및 민간참여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목표로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박람회는 국토교통부의 4곳(경상남도, 창원시, 문화일보, (사)도시재생산업진흥협회)의 주최하에 진행되었습니다. 박람회는 첫날 수요일 세미나와 개막식으로 시작되었으며 목요일은 도시재생 국제 컨퍼런스, 금요일은 도시재생 사례공유 발표대회, 토요일은 오전 세미나 이후 폐막식으로 박람회가 종료되었습니다.

수영구는 이번 박람회에 참가하여 수영구 내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도도수영'과 도시재생 예비사업으로 진행중인 'PLAY! 망미, GO! 맛미(味)'의 두 추진사업의 도시재생 경제활성화 목표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수영구는 '제 3회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대상'의 공공부문 대상(국토교통부장관상)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받으며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4일간 박람회 내 부스에서 수영구 주민(도도수영 도시재생 해설사)과 함께 박람회를 찾아 온 사람들에게 수영구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설명도 하고 우리지역 마을기업인 '(주)푸조와곰솔'에서 만든 다양한 상품을 전시 및 판매하였습니다.

수영구를 전국에 자랑하고 싶어!

도도수영 도시재생해설사 전희정

수영구도시재생주민협의체 밴드에 수영구가 2년 연속으로 도시재생 공공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올라왔다.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는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서 이렇듯 대단한 수영구를 전국에 자랑하고 싶어 직장에 휴가까지 내고 흔쾌히 참가하겠노라 응했고, 여행가기 전날 들떠서 밤잠을 설치듯 새벽에 잠이 깨어 일찌감치 마산행 시외버스에 몸을 싣고 출발했다.

이번에 박람회가 개최되는 마산해양신도시에는 때마침 올해로 21회째인 마산국화축제가 함께 시작되어 코로나 시국을 잠시 잊게 할 정도로 자동차들의 긴 행렬과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발열체크, 백신접종여부 확인 등 철저한 방역 절차 후 드디어 입장을 했다. 제주부터 강원까지 전국 지자체 부스들 중 광안대교와 광안리 SUP체험 현수막이 있는 수영구 부스가 눈에 확 들어왔다. 각종 지도, 리플릿, 소식지, 굿즈, 다양한 홍보 물품까지 수영구를 알릴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방문객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전국의 도시재생지역 관계자 및 국화축제를 보러온 많은 시민분들이 다녀갔는데 비콘 그라운드, 생활밀착형 스마트 기술사업, 생활형 SOC사업, 좌수영성 특화경관조성사업들에 대한 여러 질문을 받았고, 푸조와 곰솔 굿즈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주민참여 활동 사진과 도도수영소식지를 소개하자 놀라움과 동시에 부러움을 나타냈다.

도시재생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던 한 동네 주민이 2018년 도시재생 주민대학에 참여한 계기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도시재생 주민대학, 마을협동조합, 도도수영해설사 과정을 수강했고 주민역량강화의 결과물로 지금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우리 부스를 찾아오신 분들이 제일 많이 하였던 질문은 '어떻게 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였다. 주민들의 열정을 전달하기 위해 목소리가 잠길 정도로 신나서 설명하던 우리의 모습에서 그 해답을 찾아가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2022년에는 용인에서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가 개최된다고 한다. 도도수영뉴딜사업이 마무리되는 내년에는 수영구가 또 어떤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된다.

우리 부스를 찾는, 많은 사람들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마산해양신도시에서 열리는 도시재생산업박람회 안내봉사를 28, 29일 양일간 맡기로 하였다. 퇴직한 이후로는 일찍 서둘러 나가야 할 일이 없다보니 일찍 나가야 한다는게 신경이 좀 쓰였지만, 그래도 타도시로 간다는 것은 꼭 여행 떠나는 기분이었다. 그것도 코로나19로 이러한 기회가 더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28일에 산업박람회에 참여하기 위해 설레는 마음으로 전희정 선생님과 시외버스를 타고 갔다. 선생님과 오순도순 얘기를 나누다보니 어느새 마산에 도착하였고 먼저 오신 분들이 우리를 반겨주셨다. 산업박람회장에 들어서며 가장 눈에 띄는 도시재생박람회 대상 팻말이었다. 2회 연속 대상을 받았다 하니 수영구 관계자분들의 노고와 감사에 박수를 보내고 싶었다.

우리 부스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나누어 주는 선물도 다양하여 덩달아 기분이 좋았다. 특히 마을기업 ‘(주)푸조와곰솔’에서 만든 캐릭터인 ‘수영야류 탈’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첫날, 뜨거운 호응에 둘째날인 다음날에는 판매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판매가 이루어지고 우리 부스를 찾는 사람이 많아 기분이 너무 좋았다. 방문객들에게 수영구가 잘하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 마다, 수영구에 대해 신나게 설명하며 견학 한 번 와달라는 요청을 하곤 하였다. 그리고 각 부스를 돌아보면서 도시재생에 대한 각양각색의 홍보물과 작은 선물을 받는 재미도 소소하였다.

도도수영 도시재생해설사 신광임



부산도시재생박람회

수영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박준성

11월 18일에서 19일까지 부산역에 위치한 부산유라시아플랫폼에서 열린 ‘2021년 부산도시재생박람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이번 ‘부산도시재생박람회’는 부산광역시 주최, (재)부산시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관하여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마을공동체와 활동가, 전문가, 유관기관, 시민 등이 함께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한 장소로, 개(폐)막식, 16개 구(군) 및 마을공동체, 유관기관의 온·오프라인 부스, 도시재생세미나 및 포럼, 청년살롱, 마을수다방, 이슈잇슈 등 토크프로그램, 시민체험클래스, 마을상품 판매 및 홍보를 위한 부산클릭쇼핑, 마을주민 장기자랑 부산판스타, 시민참여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수영구도시재생주민협의체와 수영구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도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수영구 도시재생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정책갤러리], 주민과 함께 만든 ‘도도수영’ 소식지와 마을잡지 ‘푸조와곰솔’을 전시한 [마을갤러리], 수영구 마을기업 (주)푸조와곰솔에서 만든 친환경 탈취제 수영솔솔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한 [부산클릭쇼핑], 수영구도시재생주민협의체와 도도수

영 해설사가 함께 좌수영성의 역사를 알리며 시민들과 페이퍼토이를 만들어보는 [마을상품체험]을 준비했습니다.

현장의 모습은 수영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블로그와 박람회 홈페이지 그리고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블로그
blog.naver.com/ddsy4093

박람회 홈페이지
exhibition.busan.kr



대구(區)민 힐링콘서트

도시재생 청년인턴십 박선영

수영구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와 동아대학교 링크사업단에서 주최하는 ‘대구(區)민 힐링콘서트’가 비콘그라운드 2층 비콘스퀘어에서 지난 10월 23일(토) 오후 4시 30분부터 약 1시간 30분가량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공연은 코로나로 인해 지친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방역을 위해 사연공모 당선자와 사전신청자 40분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 대구(區)민 힐링콘서트는 유튜브 ‘수영구TV’를 통해 누구나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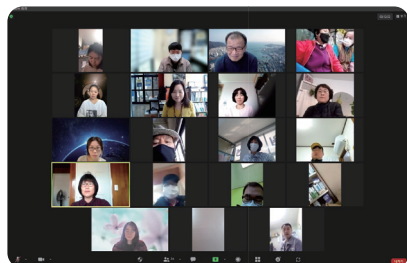
효시(소리화살) 만들기 체험

도시재생 청년인턴십 박선영

지난 11월 21일(일) 오후 12시부터 약 5시간 가량 수영성 마을박물관과 도도수영 어울림센터에서 효시(소리화살) 만들기 체험이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행사는 도도수영 뉴딜사업 마을축제의 하나로 수영사적공원의 의미를 되살리고 주민의 화합과 안녕을 바라는 마음으로 진행되어 사전에 전화접수 및 현장접수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였습니다. 체험 내용으로는 효시 만들기, 색칠하기, 효시 목걸이 만들기가 있었고, 수영성 마을박물관에서는 추가로 효시 체험 또한 진행되었습니다.



2021년 2기 수영구 도시재생 주민대학



2021년 수영구 도시재생주민대학 2기는 10월 20일~12월 8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12시 총 8회차로 마무리되었다. '수영구 도시재생주민대학'은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수영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교육프로그램의 일종이다.

이번에 진행된 도시재생주민대학은 내년(2022년) '도도수영 주민공모사업'에 수영구 주민들이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해 보는 것을 컨셉으로 진행되었다.

코로나19 및 각종 변이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감염병 시대를 맞이하여 100%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쌍방향 소통을 위해 줌(ZOOM)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본 과정의 결과물로 나온 5개의 사업계획서 외 다양한 사업아이디어가 도출되는 등 교육 과정이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피드백을 얻는 등 교육 내용의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으로 마무리되었다.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부산 수영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도도수영'은 마을관리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2020년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을 학습하며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비즈니스모델을 만들기 위해 긴 시간 준비과정을 거쳤다.



2021년 주민협의체 총회에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발족 준비에 대해 주민협의체 위원들에게 준비과정을 공유하였다. 현재 '도도수영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이름을 정하고 이사진을 꾸려 사업계획서(비즈니스모델)의 완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준비회의를 5회 진행하였다. 곧 사업계획서가 완료되면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가이드라인에 의한 프로세스를 따라 조합원을 모집하고 총회를 곧 개최 할 예정이다.



도도수영 도시재생 해설사 2기 심화과정

도도수영 도시재생 해설사 2기 심화과정이 10월 15일~12월 17일 매주 금요일 오전 총 10회차로 마무리되었으며, 11명의 2기 수료생이 배출되었다. 이들은 1년의 과정(기본과정, 심화과정)을 통해 수료되었으며 향후 전문가 과정을 거쳐 1기와 같이 '도도수영' 도시재생 해설사로 활동을 펼치게 될 것이다.

도도수영 도시재생해설사 2기 프로그램은 전문강사(전미경), 보조강사 및 팀장(1기)와 함께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진정한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완성되었다. 도도수영 투어 '상시 프로그램'이 곧 시행되면 '도도수영 도시재생 해설사'와 함께 투어를 할 수 있게 된다.



주민공모사업

01

더사인팩토리



02

수영성 무예마을



결과 및 성과 취재 김연희

04

아지매스



05

푸조와곰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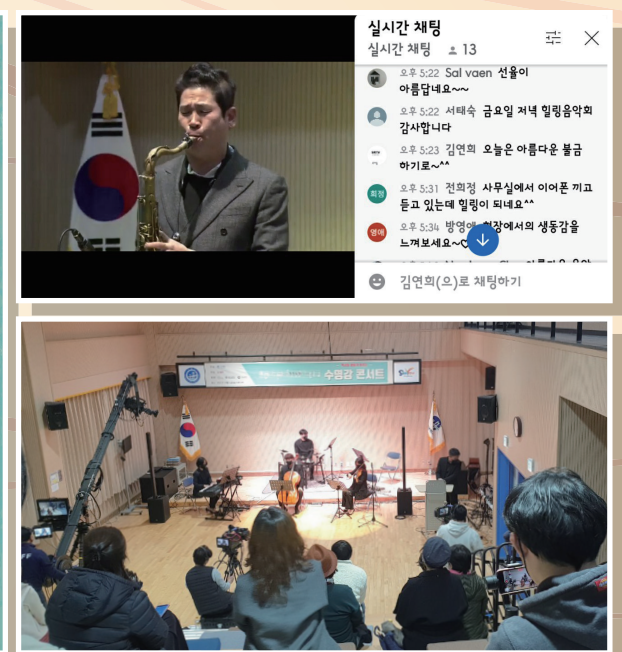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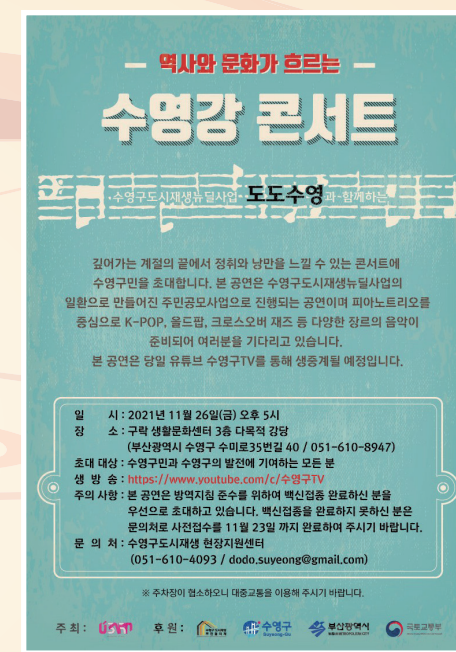
03

블루밍청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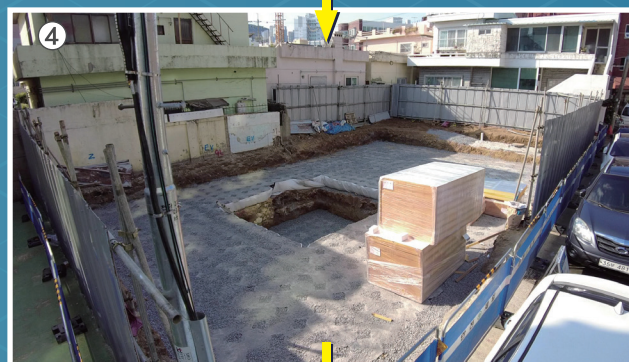
06

어반



수영 달리다

상생협력센터 공사 전·후 사진



상생협력상가, 현장지원센터 및 공유공간 조성,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Quiz 이벤트

도도수영 소식지 깜짝 Quiz 이벤트!

- 소식지를 읽고 문제 3개를 모두 맞히신 분과 오타자를 찾으신 분께 온누리상품권을 드립니다.
- 문제에 대한 답은 수영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전화로 답해주시길 바랍니다.
(전화로 답을 말할 시, '소식지 이벤트 참여'를 먼저 말해주세요!)
- 전화번호 : 051) 610-4093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점심시간 12시~1시 제외)
- 선착순 7명, 상품권 수영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방문수령! (본인수령)
- 기간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월 14일 (2주간)

다음을 맞춰보세요!

1. 이번 '2021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는 몇 회차일까요?
.....
2. '효시'가 무엇일까요?
.....
3. 지난 11월 15일, 수영구 주민협의체와 서울의 00동에 전학을 다녀왔습니다. 여기서 00은 어디일까요?
.....

전화로 문제 맞추고
"온누리상품권" 받아주세요~



발 행 처 수영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편 집 인 전미경, 김연희, 최광훈, 윤라영,
장은서, 강미라, 박준성, 박선영

디 자 인 스토리머지

발 행 일 2021년 12월 15일

인 쇄 청송인쇄사

주 소 부산시 수영구 망미번영로70번길 137

전 화 051-610-4093

블 로 그 [Blog.naver.com/ddsy4093](https://blog.naver.com/ddsy4093)

페 이 스 북 [Facebook.com/changjo180621](https://facebook.com/changjo180621)

인스타그램 @suyeong_do_do

